

보도시점 2025. 8. 29.(금) 17:00 배포 2025. 8. 29.(금) 09:00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동동마을”에 놀러오세요!

- 경기도(반려마루 여주) 보호동물을 소개하는 입양 팝업센터 운영
- (일시·장소) 8월 29일(금)~31(일), 스타필드 수원 그랜드 아트리움(1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8월 29일(금)~8월 31일(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 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 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진행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생체 정보(비문, 안면 등)를 활용한 동물등록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이다.

* (대상) 2개월령 이상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어린이들을 위한 펫티켓 테스트와 캐릭터 컬러링 북 색칠하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올바른 펫티켓과 반려동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또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반려견 캐릭터 티셔츠, 키링 등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

현장에 방문한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9월 26일(금)~27일(토)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 행사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반려산업 관련 직업 소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헬스케어·용품 체험 등 동물복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붙임 홍보 포스터

담당 부서	동물복지 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담당자	서기관	김혜을 (044-201-2616)



